



의 식 으 로 가 는 여 행

조영동 Jo Young Dong

NEO Art

25.04.08 ~ 25.05.11 N4관

조영동

Jo Young Dong 1933 - 202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1961년 대한민국 국전 수상,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5년 제19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

12회의 개인전 (1968-2010)

57년, 논산 대건고등학교 교사

58~60년대, 대전 지역 교사

65년, 목포교육대학교 교수

67~84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73~74년, 미국 휴스턴대학교 객원교수

84~98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충북도전, 충남도전, 경남도전, 전북도전, 강원도전 심사위원,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양화가 故 조영동 작가 유작 총 267점 기증

“

조용하고 처절하게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전투처럼 살다간 나의 아버지 조영동 화백은

뉴욕 시장에 억대로 그림을 팔아 본 적도 없거니와 대한민국의 유명 갤러리조차도 발굴하지 못하고
그림을 마당과 고향의 창고에 쌓아둔 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과 대면도 못한 채 이 세상과 이별하셨다.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시고 또 돌아가신 천재라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고통과 역사를 고스란히 캔버스 화폭에 담아 가며 살아가셨다.

아버지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다섯 명의 여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과 어떻게 해서든
예술이 사회에 정착되어 인간성을 회복해야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몸부림 치신 진실한 예술인이셨고 또한 나에게는 영웅인 나의 아버지...

분단되고 또 분단되고 그 안에서 또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뺏속에 지니고 사셨던

이북이 고향이신 연약한 어머니...

그 안에서 용감하게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간 우리 네 명의 자매들...

어떤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리도록 아름다운 예술가 부부의 삶과

사랑이 아버지 조영동 화백의 그림 속엔 천 가지 만 가지 색깔과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정치인 보다 예술인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의 회고전을 다시 계획해 주시는 네오아트 박정식 대표님 그리고 아버지의 예술을

재 조명 재 발굴해 보기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좋다는 미국 갤러리를 놓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네 딸을 공부시키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셨던

”

나의 아버지의 예술혼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故조영동 화백의 장녀 인터뷰

1.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1. 본질에 대한 탐구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이 인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점, 선, 흐름은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생성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2. 인종 차별과 사회적 갈등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이 미국에서 겪은 인종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목격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술 교육에 전념하며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3. 점 시리즈와 입체감

이 작품은 점 시리즈 중 하나로, 배경의 색깔이 그림자와 같은 회청색을 나타내어 입체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작가가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탐구하게 만듭니다.

4. 현미경과 우주의 이미지

이 작품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현미경의 이미지와 같고, 우주의 빅뱅을 나타내는 빛들의 조합 같기도 합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그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휴스턴 대학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조영동 화백이 인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특히 "점, 선, 흐름" 시리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 시리즈는 작가가 미국에서 겪은 인종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목격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술 교육에 전념하며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83 x 30 1975, oil on canvas

1.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82 x 50 oil on canvas

2.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102 x 70 1978 oil on canvas

4.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5.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흐름

1. 흐름과 생명력의 상징

이 작품은 캔버스의 끝자락에서 쏟아져 나와 다른 캔버스의 끝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통해 생명력과 흐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흐름은 마치 진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력의 중심을 보여주며, 이는 작가가 인간 존중과 생명에 대한 깊은 철학을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2. 고려청자의 청색과 시대적 아픔

이 작품은 고려청자의 청색과 같은 우아한 색채를 사용하며, 이는 작가가 겪은 시대적 아픔과 인생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빛 바랜 캔버스는 작가의 인생과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3.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조영동 화백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변변한 작업실을 갖지 못하고 마당에 임시로 만든 철조 건물에 작품들을 쌓아놓고 보관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그의 자폐적 성향과 알코올 중독은 작가로서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항상 부인과 자식들을 위해 작가로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답고 가슴 아픈 추상입니다.

4. 인간 존중과 생명에 대한 철학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인간 존중과 생명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생명력은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결론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인간 존중과 생명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으며, 고려청자의 청색과 같은 우아한 색채와 빛 바랜 캔버스는 작가가 겪은 시대적 아픔과 인생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35 x 90 oil on canvas 1974

5. 본질(本質) 시리즈, 점, 근원

7. 공상(空-想) 시리즈

1. 검은색의 상징성

이 작품은 완전히 검은색의 바탕을 사용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아픔과 교육자로서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검은색은 어둠과 고통을 상징하며, 이는 작가가 당대의 사회적 아픔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색은 단순히 어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암시합니다. 이는 마치 낙엽이 퇴비로 변하여 미래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2. 굵기 기법과 낙엽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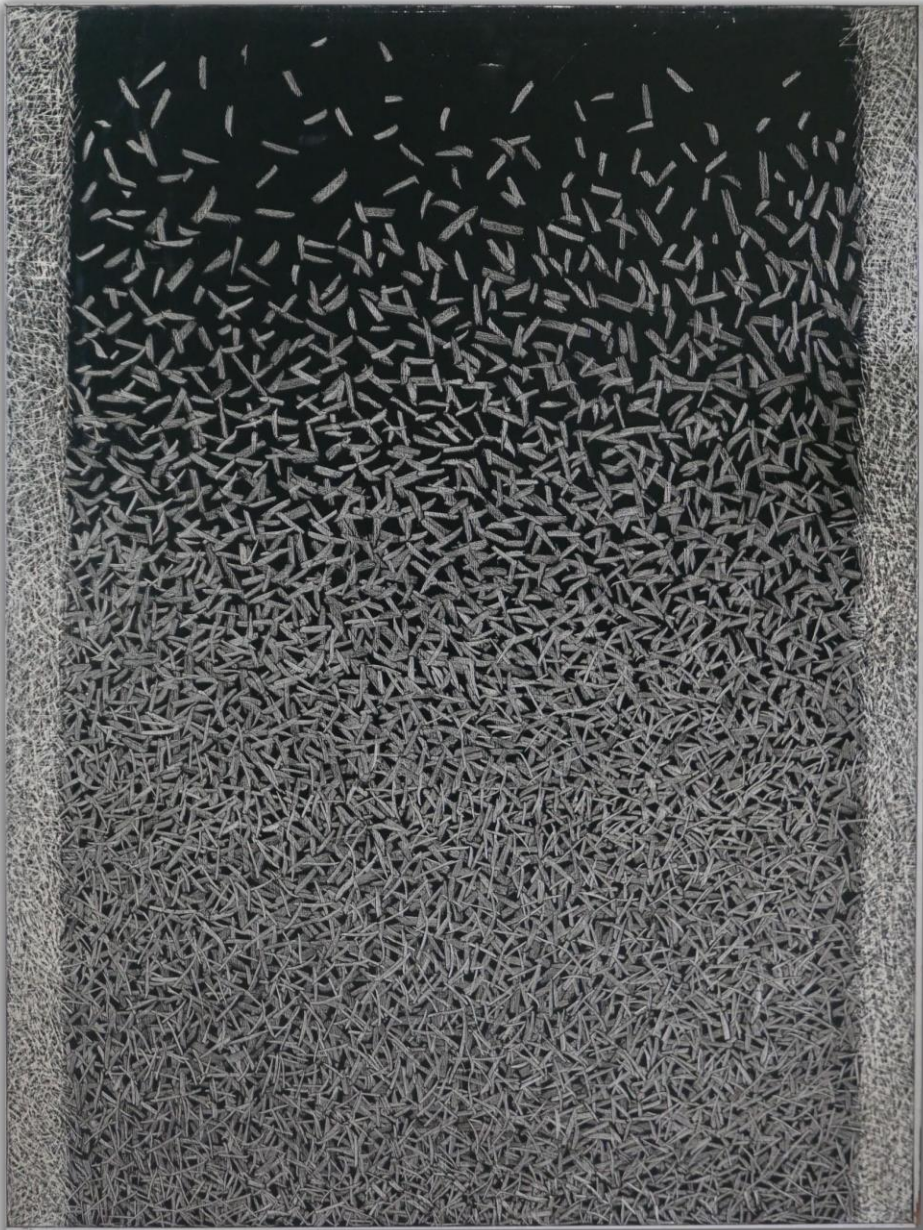
이 작품은 굵기 기법을 사용하여, 점점 밀집되고 섬세해지는 선들을 통해 낙엽이 쌓여 퇴비로 변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사회적 아픔과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근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3. 교육자로서의 심정

이 작품은 교육자로서의 조영동 화백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을 떠나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삶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그의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으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합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1980년대 초반의 사회적 아픔과 작가의 내면적 고민을 단색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미학적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검은색의 상징성과 굵기 기법은 작가가 당대의 사회적 아픔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mpty- thought/ utopia of childhood more or less 1980 oil on canvas

7. 공상(空-想) 시리즈

130x98cm, 캔버스에 유화, 혼합재료(석회, 먹)

8. 공상(空-想) 시리즈

1. 심전도와 같은 굵기 작업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앙에 위치한 세 줄의 굵기가 다른 굵기 작업입니다. 이 선들은 마치 심전도처럼 보이며, 이는 육체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각 선의 굵기와 강도는 서로 다르며, 이는 마치 공상에서 떠오르는 직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작가가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연관짓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2. 중력과 차원을 넘나드는 작업

이 작품은 위와 아래의 구분이 없이 캔버스를 돌리면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중력과 차원을 넘나드는 작업으로, 작품에 독특한 공간적 깊이와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탐구하게 만듭니다.

3. 공상과 물질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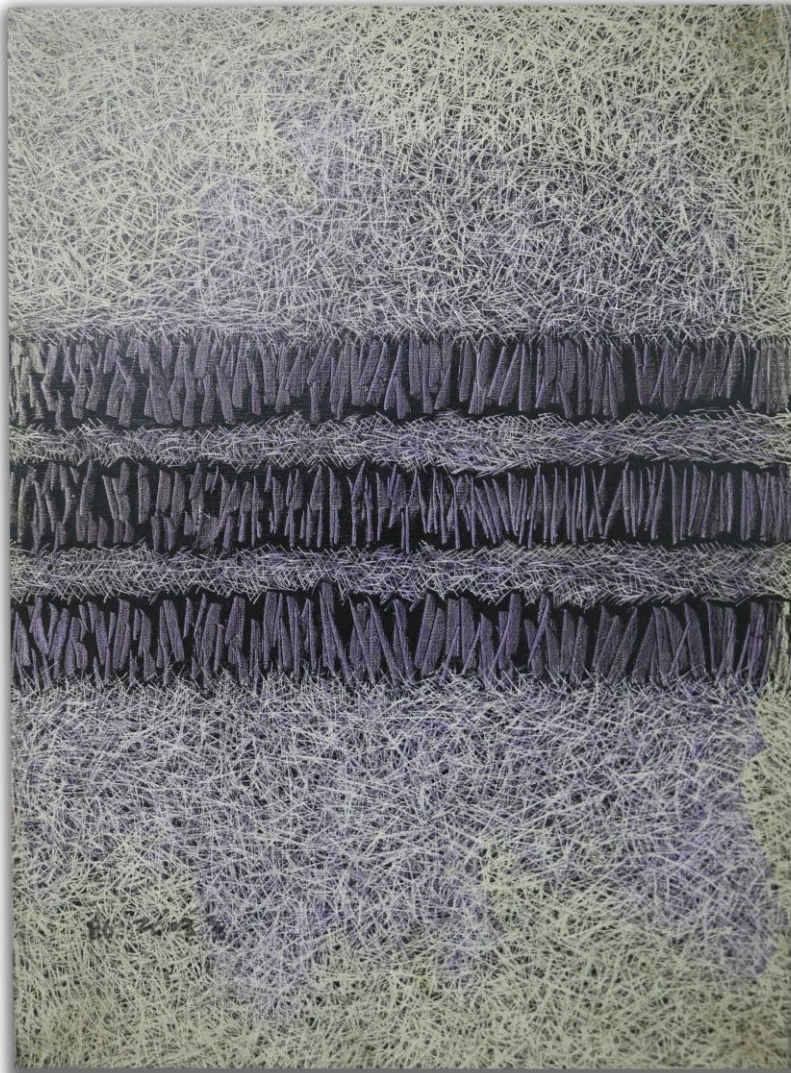
이 작품은 공상에서 물질의 세계를 연관짓는 명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선들은 마치 공상에서 떠오르는 직감을 상징하며, 이는 작가가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연관짓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4. 명상적 경험

이 작품은 관람자로 하여금 명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선들과 굵기 작업은 마치 공상에서 떠오르는 직감을 상징하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이는 작가가 추구한 "공상(空-想)"의 개념, 즉 실체가 없는 세계에서 작가의 내면적 사유와 기억이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1980년대 "공상(空-想) 시리즈" 중 하나로, 중앙에 세 줄의 굵기가 다른 굵기 작업이 들어간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심전도처럼 보이는 선들을 통해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연관짓는 명상적 경험을 제공하며, 작가의 내면적 사유와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mpty thought-fantasy-utoipa of childhood 1986 oil on canvas

8. 공상(空-想) 시리즈

73x53cm, 캔버스에 유화, 혼합재료(석회, 먹), 1986

15. 공상(空-想) 시리즈

1. 청색의 상징성

이 작품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청색을 통해 깊은 고뇌 속에서 떠오르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조영동 화백은 초기 "본질 시리즈"부터 청색을 통해 넓은 하늘과 끝없는 자유를 상징해 왔으며, 이 작품에서도 바다와 하늘을 연상시키는 시원한 청색과 새벽을 떠올리는 짙은 청색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적 사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2. 희망의 상징, 흰색

이 작품 속의 흰색은 마치 바다에 비치는 달빛과 같은 느낌을 주며, 이는 깊은 고뇌 속에서 떠오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흰색은 청색과 어우러져 작품에 깊이와 명상적 분위기를 더하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3. 깊은 명상과 평화

이 작품은 깊은 명상과 평화를 안겨줍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청색과 흰색의 조화는 마치 바다에 비치는 달빛을 연상시키며,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 낸 결과물입니다.

4. 자연과 유토피아

이 작품은 자연과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청색을 통해 깊은 고뇌 속에서 떠오르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적 사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공상(空-想) 시리즈" 중 하나로, 바다와 하늘, 그리고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청색을 통해 깊은 고뇌 속에서 떠오르는 희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초기 "본질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조영동 화백의 청색에 대한 깊은 애정과 철학을 보여주며, 바다와 하늘을 연상시키는 시원한 청색과 새벽을 떠올리는 짙은 청색이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이 작품 속의 청색은 마치 바다에 비치는 달빛과 같은 흰색과 어우러져 깊은 명상과 평화를 안겨줍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92 x 73 oil on canvas

15. 공상(空-想) 시리즈

16. 공상(空-想) 시리즈

1. 청색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 작품은 점점 더 밝아지는 청색을 통해 밤에서 새벽으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변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시간의 흐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2. 희망과 역동성의 상징, 흰색

이 작품 속의 흰색의 강렬한 한 줄기는 마치 바다의 물거품처럼 생각과 희망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 흰색의 줄기는 캔버스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3. 깊은 명상의 세계

이 작품은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청색과 흰색의 조화는 마치 바다의 물거품을 연상시키며,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4. 생각의 흐름

이 작품은 오묘한 청색의 변화 속에서 생각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유의 과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공상(空-想) 시리즈" 중 하나로, 점점 더 밝아지는 청색을 통해 밤에서 새벽으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추상화입니다. 이 작품은 오묘한 청색의 변화 속에서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며, 희망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흰색의 강렬한 한 줄기가 캔버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흰색의 줄기는 마치 바다의 물거품처럼 생각과 희망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75 x 60 oil on canvas

16. 공상(空-想) 시리즈

18. 공상(空-想) 시리즈

1. 심장의 단면과 같은 붉은색

이 작품은 심장의 단면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사랑,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붉은색은 마치 진달래 꽃의 분홍빛을 연상시키며, 이는 작가가 부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그녀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2. 부인을 향한 사랑과 치유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부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그녀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인은 평생 진달래 꽃을 사랑하며 조영동 화백에게 진달래 분홍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작품은 부인의 방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며, 그녀가 뇌졸중으로 양로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분단의 아픔과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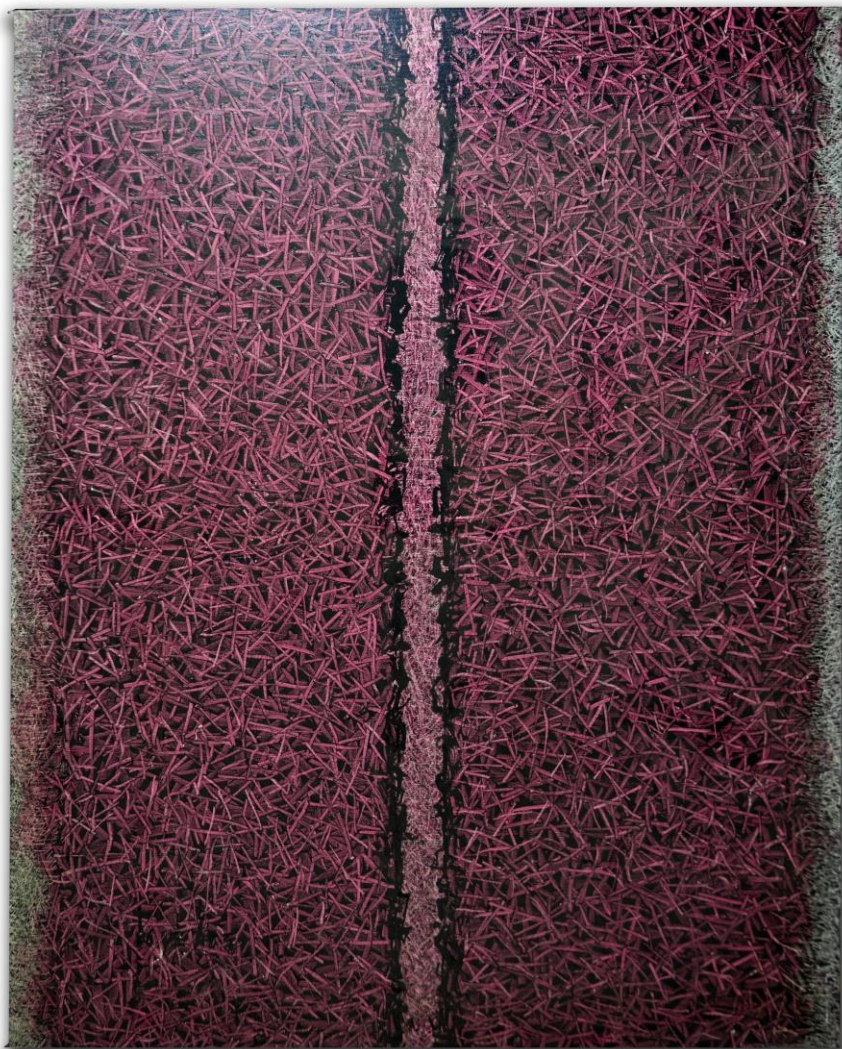
이 작품은 분단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던 부인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4. 음악과 예술의 조화

이 작품은 음악을 전공한 부인과 조영동 화백의 예술적 조화를 보여줍니다. 부인은 평생 진달래 꽃을 사랑하며 조영동 화백에게 진달래 분홍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작품은 부인의 방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며, 그녀가 뇌졸중으로 양로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은 "공상(空-想) 시리즈" 중 유일한 붉은색(분홍색) 작품으로, 심장의 단면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사랑,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부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그녀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인은 평생 진달래 꽃을 사랑하며 조영동 화백에게 진달래 분홍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작품은 부인의 방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며, 그녀가 뇌졸중으로 양로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92 x 73 oil on canvas

18. 공상(空-想) 시리즈

19. 토양, 움직임

1. 부인의 분홍색 크레파스 진달래

이 작품은 부인이 분홍색 크레파스로 그림 아래에 팔각형의 동그라미들을 그려 넣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동그라미들은 진달래 꽃을 연상시키며, 부인의 이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2. 가족의 아픔과 치유

이 작품은 둘째 딸의 죽음으로 인한 부인의 심한 우울증, 거식증, 조울증 등으로 고통을 예술로 위로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부인은 손자들의 크레파스를 사용해 그림 아래에 분홍색 동그라미들을 그려 넣으며, 이는 그녀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3. 진달래 꽃의 상징

이 작품의 분홍색 동그라미들은 진달래 꽃을 연상시키며, 이는 부인의 이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4. 자연의 자유로운 추상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공상(空-想) 시리즈" 중 세 번째 단계인 자연의 자유로운 추상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적 사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은 부인이 그린 분홍색 동그라미들을 깊이 가슴 아파하며 절대로 지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분홍색 점들은 부인의 고통과 그녀의 예술적 열정을 담담고 있으며, 조영동 화백의 삶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공상 시리즈"에서 세 번째 단계인 자연의 자유로운 추상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림 중 하나로, 후반기 공상 시리즈에서 자유로운 추상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정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52 x 90 oil on canvas

19. 토양의 움직임, 인성 시리즈

20. 토양의 움직임, 인성 시리즈

1. 자연의 창조적 느낌

이 작품은 자연 그 자체를 표현하며, 자유롭고 거대한 자연의 창조적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적 사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2. 폭발적인 색채와 울동감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오랜 "공상 시리즈" 이후에 쏟아져 나온 폭발적인 색채와 울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초록색의 생기가 관람자를 끝없는 생명의 에너지와 자연의 격동 속으로 끌어들이습니다.

3. 초록색의 생기

이 작품의 아름다운 초록색은 조명에 따라 수없이 다른 톤의 초록을 선사하며, 이는 작가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관람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적 사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4. 자연의 경이로움

이 작품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반영하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이는 작가가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결론

조영동 화백의 이 작품, **"토양의 움직임, 인성 시리즈"**는 130x120cm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와 혼합 재료(석회, 먹 등)를 사용해 제작된大作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 그 자체를 표현하며, 자유롭고 거대한 자연의 창조적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조영동 화백의 오랜 "공상 시리즈" 이후에 쏟아져 나온 폭발적인 색채와 울동감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초록색의 생기가 관람자를 끝없는 생명의 에너지와 자연의 격동 속으로 끌어들이습니다. 조영동의 독창적인 미학적 탐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감성적 울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 본질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깊은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30 x120 1992, oil painting on canvas

20. 토양의 움직임, 인성 시리즈

24. 천지창조-GENESIS

1. 강렬한 빛의 시각화

이 작품은 "빛이 있으라"라는 Genesis의 첫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강렬한 빛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하며, 강렬한 에너지와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2. 모든 것의 시작을 암시

이 작품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암시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분포되는 빛과 물결의 축제 같은 이미지는 창조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 강한 시작의 환희

이 그림은 관람자에게 강한 시작의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빛과 물결의 움직임은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4. 천지창조 시리즈

이 작품은 조영동 작가가 천주교 잡지의 표지를 위해 제작한 "천지창조"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시리즈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영감과 창조

이 작품은 성경의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된 것으로, 조영동 작가의 종교적 영감과 예술적 창조력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

이 작품은 조영동 작가가 천주교 잡지의 표지를 위해 제작한 "천지창조" 시리즈 중 하나로, "빛이 있으라"는 Genesis의 첫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강렬한 빛을 시각화하여 모든 것의 시작을 암시하는 강렬한 에너지와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끝없이 분포되는 빛과 물결의 축제 같은 이미지는 관람자에게 강한 시작의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영동 작가의 종교적 영감과 예술적 창조력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72 x 60 oil on canvas

24. 천지창조 - GENESIS

26. 에케호모 시리즈

1. 에케호모 시리즈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에케호모" 시리즈 중 하나로, 그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일그러진 얼굴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표현합니다.

2. 깊은 고민과 아픔

이 작품은 작가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숨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관통하며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입니다.

3. 강한 정신력과 인간애

조영동 화백은 이 작품을 통해 강한 정신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의 삶과 예술적 여정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4. 운명적 삶의 반영

이 작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족을 유리창 너머로 보며 이 세상과 이별한 화가의 운명적 삶을 잘 나타냅니다. 이는 그의 가슴아픈 얼굴 시리즈 중 하나로, 인간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5. 예술적 승화

조영동 화백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예술적 승화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결론

이 작품은 조영동 화백의 "에케호모" 시리즈 중 하나로, 그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관통하며 예술로 자신의 삶을 승화시킨 그의 강한 정신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족을 유리창 너머로 보며 이 세상과 이별한 화가의 운명적 삶을 잘 나타내며, 인간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영동 화백의 예술적 승화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잘 보여주는 이 작품은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 x 90 oil on canvas

26. 에케호모 시리즈

의식 으로 가는 여행

조영동 Jo Young Dong

NEO Art

25.04.08 ~ 25.05.11 N4관